

가동률 '뚝' 지역 산단 경쟁력 확보 급하다

광주첨단 50인미만 기업가동률 54%, 광양만권 외국인 투자 61% ↓
근무 환경·정주 여건 바꾸고 젊은 인재 머무를 생태계 체질 개선해야

국회 국정감사를 계기로 광주·전남지역의 열악한 산업 생태계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잇따르면서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고 산단 내 투자자 발굴에 어려움을 겪다보니 활력 저하로 이어지는가 하면, 노후화된 산단 주변 환경을 개선하거나 젊은 인재들이 머무를 수 있는 산업생태계 조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는 게 경제계 분석이다.

◇**활력 잃어가는 산업단지**·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의 '국가산단 가동률' 자료에는 첨체 일로에 있는 지역 산업단지의 실태가 드러나 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에 관할하는 광주 첨단과학국가산단의 경우 50인 미만 입주기업들의 가동률은 지난 6월 기준으로 52.5%로, 2년 전보다 19.3%나 떨어졌다. 첨단산단 내 50인 이상·300인 미만 입주기업들의 가동률도 54.0%에 머물면서 2년 전(82.9%)에 견줘 28.9%나

급락했다. 일각에서는 300인 이상 대기업들의 올 6월 기준 가동률이 2년 전보다 1.1% 증가한 점과 비교해 양극화가 심해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가산단 전체 50인 미만 입주기업들의 가동률도 지난 6월 기준으로 2년 전보다 10.1% 하락한 것을 고려하면 광주·전남지역 산단 침체가 심각하다는 게 경제계 분석이다.

활기를 띠지 못하면서 입주 기업들은 적고 떠나는 기업들도 많았다. 광주지역 국가산단에 입주했다가 계약을 해지한 기업은 7월 기준 74개로, 신규 입주업체(65개)보다 많았다. 광주의 경우 2013년 이후부터 한 차례(2014년)를 제외하면 입주 계약을 해지한 업체가 산단 신규 입주업체보다 많을 때는 올해가 처음이라는 게 김 의원 설명이다.

◇**외면받는 산업단지**·여기구 민주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경제자유구역별 투자 유치 현황' 자료

에선 광양만권의 저조한 외국계 기업의 투자 유치 현황을 살펴볼 수 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이 유치한 외투기업의 외국인직접투자(FDI) 액수(도착 기준)는 전년도에 비해 61.4%나 줄면서 전국 7개 경제자유구역 중 감소폭이 가장 컸다.

경제자유구역은 해외 투자자본과 기술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세제 감면이나 규제 완화 등의 혜택을 부여한 특별지역으로,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대구·경북, 황해, 동해안권, 충북 등 7개 구역이 지정돼 있다. 지난해 광양만권을 비롯한 전국 7개 구역이 유치한 외투기업의 전체 외국인직접투자(FDI) 액수(도착 기준)는 11억8640만달러(1조4254억원)로 집계됐다.

광양만권의 경우 1428만5000달러를 유치, 전년도(3699만1000달러)에 비해 무려 61.4%나 급감한 반면, 인천은 전년도보다 324.1%나 많은 10억6511만달러를 유치했다.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도 전년도에 비해 140.4%가 증가한 2435만3000달러를 유치했고 황해도도 100%나 급증했다. 부산·진

해의 경우 7876만4000달러를 유치, 전년도보다 52.4%가 줄었지만 광양만권의 감소폭에는 못 미쳤다. 동해안권은 투자액이 전혀 없었다.

외국계 기업 투자만 집계한 게 아니다. 수도권이 아닌, 지방 산단에 투자하겠다는 민간사업자 발굴 자체도 쉽지 않고 산단 활성화에 대한 가능성도 담보하기 어렵다 보니 광주·전남 국가산단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구조고도화 사업'에 참여할 민간 사업자 발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전남지역본부는 지난 2014년부터 첨단과학산단, 대불, 여수, 광양국가산단 등 4곳을 대상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조고도화사업' 참여사업자를 모집중이지만 사업자를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 경제계에서는 노후화되고 산업재해에도 취약한 산업단지의 열악한 근무 환경 및 정주 여건을 바꿔야 젊은 우수한 인재가 몰린다는 점을 감안, 산업단지 체질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을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대인예술야시장으로 '가을夜行' 오세요

10월 맞아 매주 토요일 개장
아트컬렉션·평화콘서트 공연

광주시는 10월을 맞아 '무장무장(갈수록 더 많이)'이라는 주제로 매주 토요일 저녁 7시부터 11시까지 대인예술야시장을 개장한다.

10월 야시장은 가을의 감성을 몰신 느낄 수 있도록 기존의 프로그램들은 내용에 깊이를 더하고, 새로운 분위기 조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시도한다.

10월의 한평갤러리는 '관계(Relation)'라는 주제로 5일부터 26일까지 전시가 진행된다. 나와 타인의 관계 맺기 통해 우리를 찾아간다는 내용으로 최미애, 손유안, 지정심 3인의 작가는 각자의 방법으로 내 안의 나에게 대화를 시도하고, 타인에게 손을 내민다.

새롭게 단장한 아트컬렉션 샵 '수작'은 에디션 프린트 작품을 판매한다. 도

자 귀결이, 다관, 금속공예, 섬유공예 등 100여 가지의 셀러 수제아트상품들이 평일에도 상설 전시·판매되는 아트샵으로 운영된다.

다문화공간 드리머스는 '차별과 편견 없는 사회를 꿈꾸는 'Break the walls!'를 주제로 인권평화콘서트를 연다. 12일 미혼모의 집 돕기, 26일 시리아 난민 가정 어린이 돕기 자선공연이 펼쳐진다.

드리머스에서 활동하는 다국적 예술인들의 공연과 함께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인권문제에 대해 알리고, 관심을 갖고 해결방안을 찾아보는 의미 있는 자리로 마련된다.

이와 함께 야시장체험존, 원데이클래스, 상설공연프로그램 '에인열전' 등의 프로그램도 새로운 주제로 진행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대인예술야시장 공식 블로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소셜캠퍼스 온(溫) 광주' 개소

광주시는 2일 광산구 송정동 KH타워에서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소셜캠퍼스 온(溫) 광주'를 개소했다.

'소셜캠퍼스 온(溫) 광주'는 송정역 건너편에 3개층 1000㎡ 규모의 공간으로, 초기 스타트업 기업들이 지속가능한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평가를 거쳐 선정된 상주기업 20곳이 입주하게 되며, 소규모 기업 30여개가 들어설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됐다. 기업 사무실과 협업 공간, 운영사무국도 들어선다. 센터에 입주하게 될 기업은 최대 2년간 사무공간, 회의실, 교육장, 공동 사무기기 등 창업 인프라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광주시는 설명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5·18공원 단성전서 개천대제 하는 개천대제를 열고 있다.

사단법인 국조송모회 회원들이 단기 4352년 개천절인 3일 오전 광주시 서구 5·18공원 여의산상 단성전에서 단군의 건국이념인 '홍익인간' 사상을 받들고 시민들의 번영을 기원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전남 동부권 농아노인복지센터 순천에 개소

농아 어르신 돌봄·자립 도움

청각·언어 장애를 겪는 농아 어르신의 돌봄 및 사회 자립 훈련을 위한 전남 동부권 농아노인복지센터가 4일 순천에서 개소한다.

전남지역 청각·언어 장애인은 2만673명이다. 전체 장애인의 약 15%를 차지하고 있으나 마땅한 복지시설이 없었다. 이 때문에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 전남협회에 위탁해 서부권(목포시)에 농아노인복지센터를 시범 운영을 해왔다. 그 결과 호응도 및 참여율이 높아 이번엔 동부권에도 설치하게 된 것이다.

의사소통이 어려운 농아인의 장애 특성상 복지관이나 경로당 등을 이용할 수 없어 그동안 농아 어르신만을 위한 별도의 여가 및 사회 참여활동 등을 지원하는 시설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엔 개소하는 동부권 농아노인복지센터는 한국농아인협회 순천지부에 위탁해 운영한다.

교육실, 상담실, 식당 등 시설을 갖춰 청각·언어 장애로 고통받는 농아인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활동 등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생활기반시설 확충 465억 투입

해남 땅끝가족어울림센터·화순 세대 연대센터 건립 등 18개 사업

전남도내 열악한 생활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전남도가 국비 465억원을 확보해 투입한다.

전남도는 3일 "생활SOC복합화 사업으로 해남군 땅끝가족어울림센터 건립, 광양시 광영 생활형 SOC복합시설 등 3건, 화

순군 세대 연대센터 건립 등 18개 사업에 대한 국비 465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생활SOC는 보육, 의료, 복지, 교통, 문화, 체육시설 등 일상생활에서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필수 인프라를 의미한다. 생활SOC복합화사업에는 문화체육관광

부의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국민체육센터, 생활문화센터, 복지부의 국공립 어린이집, 주민건강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여성가족부의 공동육아나눔터, 가족센터, 국토교통부의 주거지주차장 등이 포함돼 있다.

시·군별로 해남군의 경우 7년 연속 함께 출산율 전국1위 달성과 다문화가족 자녀 증가에 따라 "땅끝가족어울림센터"를 건립한다. 화순군의 '세대 연대센터'는 국민체육센터, 가족센터, 주거지주차장, 생활문

화센터, 작은도서관 등 5개의 지원사업과 군 자체사업인 주민자치센터, 엄마의 학교, 마을혁신센터 등 총 8개 시설을 갖추게 된다. 순천시의 '오전지구 복합플랫폼 구축'은 유수지를 활용해 국민체육센터와 공공도서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생활 인프라 개선사업이다. 국가정원 등 주변 관광 콘텐츠와 연계해 지역의 장기적 발전을 견인, 시민과 관광객 모두를 위한 혁신공간으로 조성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이용섭 광주시장, AI 기술협력·벤처마킹 美 방문

이용섭 광주시장이 인공지능(AI) 관련 기술협력 및 벤처마킹을 위해 오는 6일부터 11일까지 4박6일 일정으로 미국 실리콘밸리를 방문한다.

이 시장의 이번 실리콘밸리 방문은 광주가 추진 중인 '인공지능 중심도시 광주'의 청사진과 비전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출장길에는 지역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기업 8개사 대표자들이 동행해 현지 투자자 발굴에 나선다. 이들 기업은 지난

8월말 슈퍼컴퓨터 분야의 권위자이자 광주시장인공지능 기술고문인 김문주 박사가 일주일 동안 광주에 머물면서 직접 컨설팅을 진행해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기업으로 선발한 업체들이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2019 Heungbu Festival

제 27회 흥부제

2019.10.11(금) > 10.13(일)

사랑의 광장 일원

개막식 및 축하공연
10.11(금) 18:30

“**흥부(興富)가 돌아왔다**”

			
마마무	워너원(하성운)	정수라	변진섭
			
미스트롯(숙행)	미스트롯(김소유)	박진도	임채무

주최·주관  남원시 흥부제전위원회

흥부樂 놀부樂
10.12(토) 19:00

			
노사연	오승근	진시몬	양혜승

불꽃놀이
10.12(토) 21:00